

삼성전자, 가정용 AI 로봇 '볼리' 출격... 美 안방시장 공략

美 사전 등록, 올 여름 정식 출시
구글 제미나이에 자체 AI 결합
주변 데이터 분석... 맞춤형 조언

삼성전자가 5년간의 개발 끝에 가정용 인공지능(AI) 로봇 '볼리'를 올 여름 미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단순한 스마트홈 기기를 넘어 AI 비서형 로봇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볼리의 사전 등록 웹페이지를 열고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이용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면 볼리의 출시 일정과 상세 기능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볼리는 공 모양의 본체에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로, 스피커·프로젝터·카메라·마이크 등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가정용 AI 로봇이다. 집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벽이나 바닥, 천장 등에 1080p 화질의 영상과 정보를 투사한다. 또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하거나 전화 연결·음악 재생 등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스마트싱



삼성전자 미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능형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볼리'의 사전예약을 위한 웹페이지 화면. /삼성전자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스' 플랫폼과 연동해 가전제품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배터리는 8시간 이상 지속되며,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는 자율 충전 기능도 탑재했다.

구글의 멀티모달 AI '제미나이'와 삼성 자체 AI가 결합해 기술적 차별화를 꾀했다. 음성 명령, 시각 정보, 주변 환경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인식해 옷차림을 추천하거나, 피곤하다는 말에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등 맞춤형 조언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가정용 로봇 시장은 2025년 101억6000만 달러(약 14조 8000억원)에서 2030년 240억5000만 달러(약 35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8.8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제품은 없다. 아마존은 2021년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999달러(약 140만원)에 출시했지만, 고가에 제한적인 기능으로 인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

지 못했다. 메타와 애플도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과 가정용 로봇 개발에 뛰어 들었지만 상용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볼리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가 가정용 로봇에 관심을 보였으며, 적정 가격대로는 50만~80만 원대를 꼽았다.

LG전자도 AI 가정용 로봇 'LG Q9'을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LG Q9은 집안 내 다양한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는 이동형 AI 홈 허브로, 음성·음향·이미지 인식 기반 멀티모달 AI를 적용해 집안을 이동하며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 멀티모달은 말소리, 소리, 영상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동시에 인식해 더 자연스러운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LG Q9은 두 다리 형태의 바퀴로 움직이고, 화면에 눈 모양 이모지를 표시해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능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진행하는 '비스포크 AI' 옥외광고 모습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알린다

美·英 등 국내외 옥외광고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비스포크 AI' 옥외광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외광고는 비스포크 AI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혁신과 편리함 등의 가치를 소개하는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도 옥외 광고가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과 코엑스, 신분당선 강남역, 여의도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수원·고양·안성 등 전국 9개 주요 랜드마크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광고를 운영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석화업계, 글로벌 무대에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뽐내

차이나플러스 2025

롯데케미칼 자원순환 솔루션 제시
SK케미칼 재활용 소재 라인업 선포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인다.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 주요 업체들은 지속가능성과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을 내세우며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차이나플러스 2025'가 개최된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미

레오 향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력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렸다.

'Life Enriching Solutions' 존에서는 롯데케미칼의 다양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술력을 선보인다. 'Home Appliance' 존에서는 난연, 투명, 항균 등 롯데케미칼의 고기능성 소재가 적용된 가전 하우징 제품을 전시하며 'Packaging' 존에서는 생활용품 용기부터 산업용 폼보드까지 차별화된 포장용 소재를 'Industrial' 존에서는 투명 EVA가 적용된 태양광판 및 고투명 PP가 적용된 의료용품 등 산업용 제품들을 공개한다. 'Mobilit

y' 존에서는 뛰어난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지닌 자동차 내·외장 부품이 전시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그간 쌓아온 스페셜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가능한 스페셜티 솔루션을 집중 소개한다.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순환 재활용 소재 분야에서는 ▲사용 후 PET로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코폴리에스터 '클라로'가 적용된 로레알, 에스티로더의 스킨케어·메이크

업 제품 ▲PET 소재인 '스카이펫 CR'이 적용된 삼다수 물병 및 폴드플레이 에코 LP판 ▲순환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CR'이 적용된 CS 그룹의 인테리어 타일 등 사용 전과 사용 후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 소재 라인업을 선보인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을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쓰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태계가 먼 미래에 이뤄야 할 지향점이 아닌 현 시점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WCX 참가

중소협력사와 신규 시장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출 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 지원 등 상생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개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에 공동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관을 구축하고, 협력사별 전시부스를 마련해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전시회는 동일기계공업, 세인아이앤디, 성원피에프, 광성강관공업, 성림첨단산업 등 24개사가 함께했다.

일부 협력사는 견적 요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계약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세련미·주행감·안정성' 삼박자... 무쏘 영광 계승하나

자동차 시승기

무쏘EV

실용적인 디자인 요소 인상적
SUV 승차감... 전비 기대이상

무쏘EV는 픽업이라는 투박한 스타일에 세련미를 장착, 실용성 있는 크기와 가격, 무게중심 변화로 안정적인 주행까지 고객이 원하는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 KG모빌리티(KGM)가 새롭게 선보인 '무쏘EV'를 시승 후 느낀점이다.

무쏘EV 시승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G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센터



KGM 무쏘EV 외관 모습.

/이승용 기자 lsy2665@

강남에서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오가는 왕복 약 9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무쏘EV의 첫 인상은 웅장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느낌을 줬다. 픽업 고유의 강인함과 전기차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접목한 외관에 실

용적인 디자인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했다.

무쏘EV는 픽업트럭이지만 중형 SUV 수준의 승차감과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과 정숙함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는 매끄럽고 유연하게 나아갔다. 과속방지턱에서는 꿀렁거림을 예상했지만 부드럽게 넘어갔고,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무쏘EV 전비는 1kWh(킬로와트시)당 5.8km로, 공인 복합전비(4.2km/kWh)보다 높았다.

내구성과 안정성, 스타일까지 갖춘 무쏘EV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전통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아, AI 상담사 도입

기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고객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상담사를 도입한 AI 기반 고객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합하고 고객경험 혁신과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고객센터에 신규 도입된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AI 상담이 가능해 단순 문의에 대해 자동으로 응대한다.

/양성운 기자